

쓰고 담다, 쓰고 담아 가다
쓰담쓰담 2

하루 세 줄 마음에 담기



쓰담쓰닮: 쓰고 담다, 쓰고 닮아 가다 2

하루 세 줄 마음에 담기

발행일 2024. 10.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엮은이 백슬기

편집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최종성, 최지혜

주소 (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번호 02.719.6417

홈페이지 [slei.seoul.kr](#)

본 제작물은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발행했습니다.

쓰담쓰닮: 쓰고 담다, 쓰고 닮아 가다

〈쓰담쓰닮: 하루 세 번, 하루 세 줄〉은
하루에 한 장씩 언제 어디서나 꺼내어 보며
멋진 글귀들을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겨
온전히 한 권에 담을 수 있게 한 책입니다.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따라 쓰며, 멋진 글귀들을 닮아 갈 수 있도록
풍부한 글쓰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쓰담쓰닮 2: 하루 세 줄 마음에 담기〉는

문해 학습자가 명작 속 교훈을 새기고
마음의 지도를 넓힐 수 있도록
좋은 글귀와 명언, 명시, 고전 작품 등을 가득 담아
한 권으로 엮어 낸 익힘책입니다.

차례

I 내 삶의 나침반

- 1 마음의 지도를 넓혀 줄 글귀 3
- 2 마음에 새기는 말씀 11
- 3 사자성어로 배우는 삶 19

II 마음속 시 한 편

- 4 향기로운 시 29
- 5 님의 노래 39
- 6 그리운 고향 49

III 가치 있는 옛이야기

- 7 세 줄에 쓰는 우리 시조 61
- 8 여인의 지혜 69
- 9 교훈을 주는 이야기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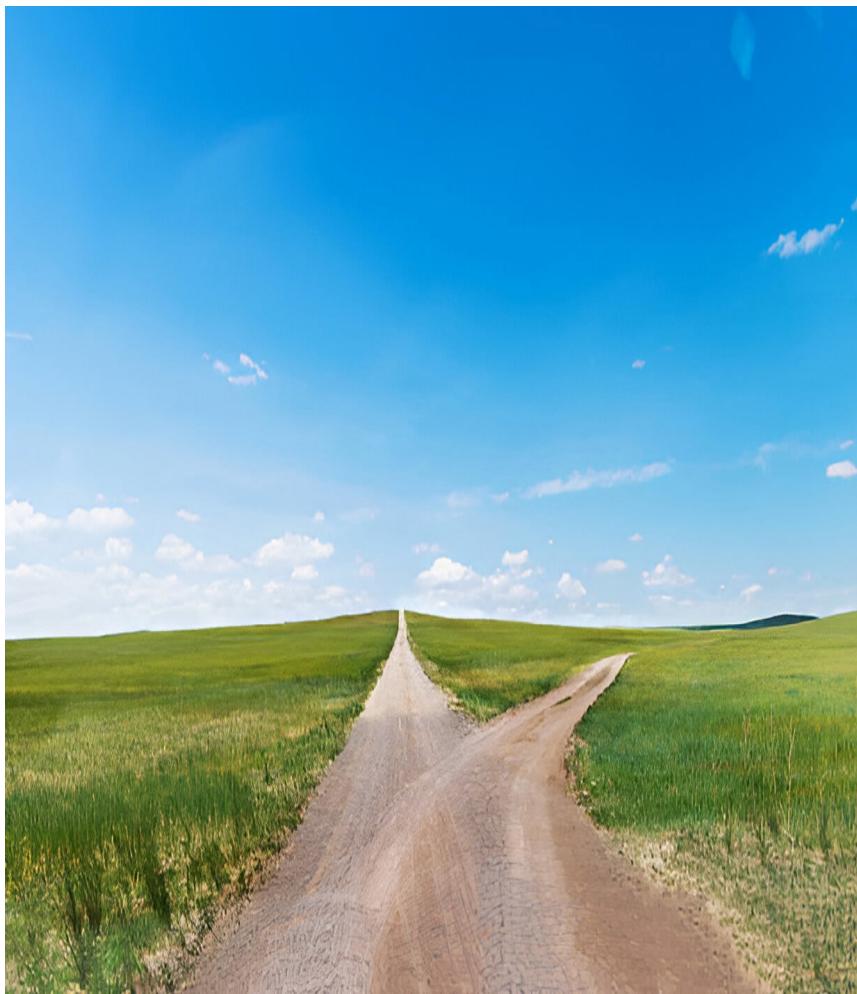
I

내 삶의 나침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같은 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단원에는 마음의 지도를 넓혀 줄 글귀, 마음에
새기는 말씀, 사자성어로 배우는 삶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여러 글을
담았습니다. 존경받는 위인들의 말과 우리 조상들이 남긴 사자성어를
읽고 쓰며 내 삶의 나침반이 될 글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1

마음의 지도를 넓혀 줄 글귀



생각하기

.....

‘명언’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위인들의 명언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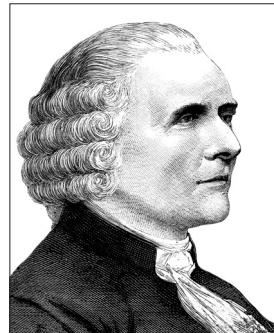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 안중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 루소



뜻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성공하지 못한다.
먼저 반듯이 뜻을 세워라.

- 율곡 이이

- 명언을 다시 읽으며 나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2 새겨 보기

- 우리나라 위인들의 명언을 읽고 따라 써 봅시다.



노력하여 어려움을 이기면
어려움은 곧 기쁨이 된다.

- 이순신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 정약용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며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백 번 읽고 백 번 익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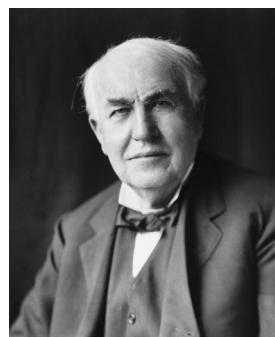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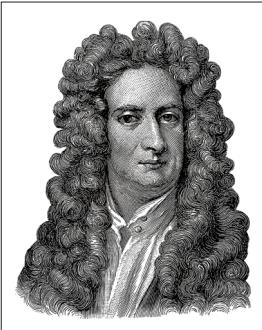
- 세종대왕

- 따라 쓴 명언을 다시 읽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 세계 위인들의 명언을 읽고 따라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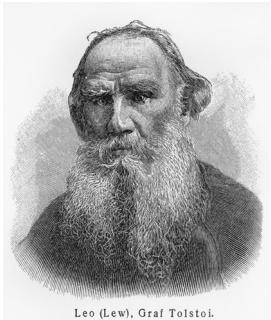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뉴턴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실패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 에디슨



Leo (Lew), Graf Tolstoi.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스스로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 톨스토이

- 따라 쓴 명언을 다시 읽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3

나아가기

- 앞서 살펴본 명언들을 되짚어 보며,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여 빈칸에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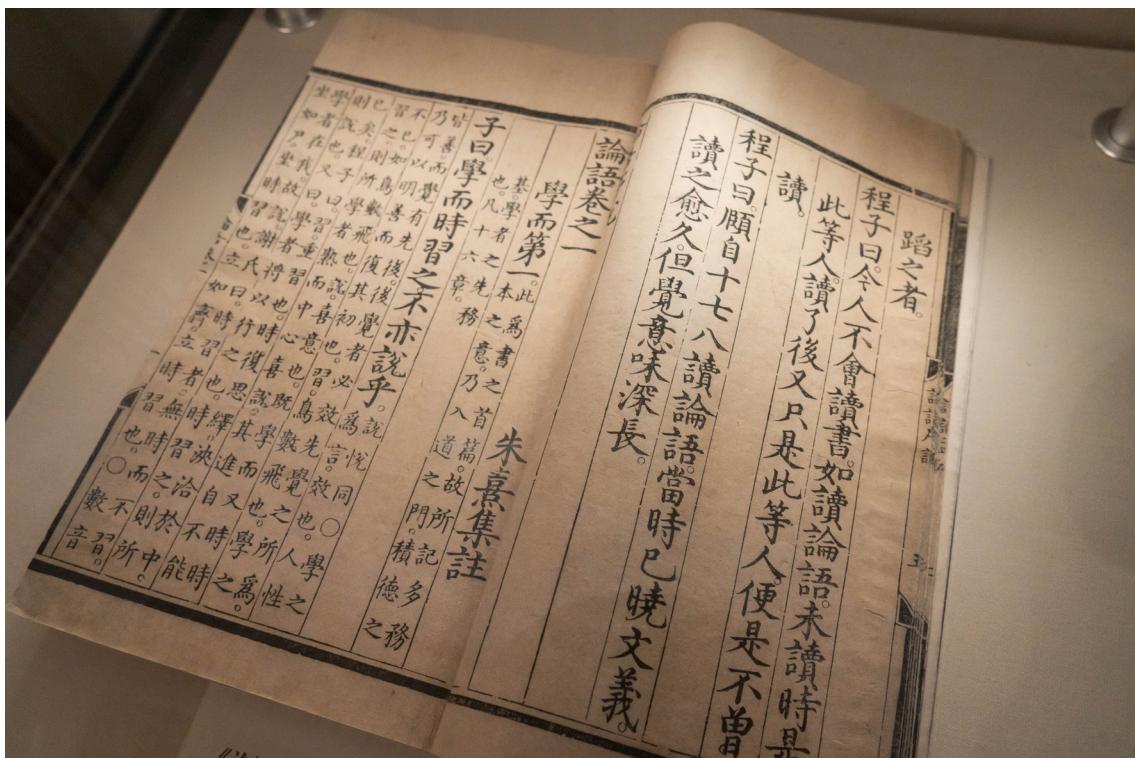
2. 동료 학습자들과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본받을 만한 삶의 가치가 있다면 써 봅시다.

동료 학습자 이름	본받을 만한 삶의 가치

3.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우리 학급 구성원의 삶을 위한 명언을 만들어 봅시다.



2 마음에 새기는 말씀



생각하기

.....

공자와 노자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교사는 공자와 노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줍니다.

1

읽어 보기

- 공자와 노자의 삶에 대한 글을 읽어 봅시다.



공자는 춘추시대의 유학자로, 오늘날 유학(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공자는 30대부터 제자들을 가르쳐 무수히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공자의 사상과 말은 『논어』에 담겨 있다.

노자는 춘추시대의 사상가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다. 노자는 도가의 창시자로 불리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도덕경』이 있다.

- 공자와 노자에 관련된 글을 다시 읽고, 그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2

따라 쓰기

- 공자의『논어』에 있는 글을 읽고 따라 써 봅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도를 내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만 쳐다보지 마라.
속도를 내려고 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 쳐다보면
큰일을 성공시키지 못한다.”

- 자로 17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반드시 나의 스승이 하나 있을 것이다.
셋 중 하나는 나아니,
나머지 둘 중 선한 사람을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고쳐야 한다.”

- 술이 21장

- 따라 쓴 『논어』를 다시 읽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글을 읽고 따라 써 봅시다.

가득 채우면 흘러넘치니,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이 낫다.
날이 너무 날카로우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은이 집에 가득 차면 이를 지키기 어렵다.
부유하다고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길 뿐이다.
공을 이루고 나서는 스스로 물려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 제9장

현명함을 따르지 않으면,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훔치는 일이 없어진다.
욕심낼 만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 제3장

-
-
-
-
-
-
-
-
-
-
-
-
-
-
-
-
-
-
-
- 따라 쓴 『도덕경』을 다시 읽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3

나아가기

1. 『도덕경』의 글귀를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발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다리를 벌리고는 오래 걸을 수가 없다.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시비를 가리지 못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게 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 제24장

2. 1번에서 읽은 글귀의 의미에 대해 동료 학습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글귀의 의미를 정리하여 써 봅시다.

3

나아가기

3. 『논어』의 글귀를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다.

정직한 사람과 벗하고, 진실한 사람과 벗하며,

많이 아는 사람과 벗하면 유익하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벗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벗으며,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 <계씨> 4장

4. 3번의 글귀를 읽은 후,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에 대해 써 봅시다.

유익한 사람	● _____
해로운 사람	● _____

3

사자성어로 배우는 삶



풍속화첩_서당 by 김홍도,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CC BY



생각하기

.....

내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와 그 의미를 이야기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사자성어와 관련된 글을 읽어 봅시다.



고사성어는 옛이야기나 사건에서 유래된 교훈과 의미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중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네 개의 한자에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사자성어로는 ‘오매불망’, ‘막역지우’, ‘주경야독’, ‘금의환향’ 등이 있습니다.

- 글을 다시 읽고, 글에 나타난 사자성어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2

따라 쓰기

- ‘새옹지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의미를 따라 써 봅시다.

새	옹	지	마
塞	翁	之	馬
(변방 새)	(늙은이 옹)	(어조사 지)	(말마)

‘새옹지마’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옛날에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낙심했는데, 그 후 달아났던 말이 준마 한 필과 함께 돌아왔다. 그러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오” 하며 말했다. 그 후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따라 쓰기

새옹지마: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기 어려움

■ ‘결초보은’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의미를 따라 써 봅시다.

결	초	보	은
結	草	報	恩
(맺을 결)	(풀 초)	(갚을 보)	(은혜 은)

‘결초보은’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 위무자에게는 애첩이 있었다. 그의 아들 위과는 위무자가 죽은 후 위무자의 애첩을 순장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집보내 주었다. 세월이 흐른 후 전쟁터에서 위과가 적군을 쫓아갈 때, 갑자기 무덤 위의 풀이 묶여 적군을 넘어뜨렸다. 그날 밤 위과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나는 네가 시집보낸 아이의 아버지다. 오늘 풀을 묶어 네가 보여 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초보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 ‘반포지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의미를 따라 써 봅시다.

반	포	지	효
反	哺	之	孝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 지)	(효도 효)

‘반포지효’는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도를 이르는 말이다. 진나라의 무제는 이밀이라는 신하를 무척 아꼈다. 무제는 이밀에게 높은 관직을 내리지만 이밀은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을 사양한다. 이밀은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하며 “한낱 까마귀도 자란 후에는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자신을 길러 준 어미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합니다. 저도 늙으신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반포지효: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도

■ ‘괄목상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의미를 따라 써 봅시다.

괄	목	상	대
刮	目	相	對
(비빌 괈)	(눈 목)	(서로 상)	(대할 대)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상대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었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 나라의 손권에게는 여몽이라는 부하가 있었다. 여몽은 무예는 뛰어났지만 학문은 익히지 않았다. 손권은 여몽에게 “장차 큰일을 하려거든 학문을 닦아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후 여몽은 날마다 책을 읽으며 학문을 닦았다. 어느 날 친구 노숙이 여몽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숙은 예전과 다르게 학식을 쌓아 똑똑해진 여몽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여몽을 다시 쳐다보았다.



괄목상대: 상대의 학식이나 재주가 부쩍 늘었음

3

나아가기

1. 의미와 일치하는 사자성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새옹지마 결초보은 반포지효 괄목상대

번호	의미	사자성어
1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도	
2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기 어려움	
3	상대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었음	
4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2. 사자성어 중 나의 경험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를 고르고,
나의 경험을 써 봅시다.

사자성어	
나의 경험	

3. 2번의 경험으로 느낀 교훈을 쓰고 발표해 봅시다.

II

마음속 시 한 편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감정을 짧은 글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입니다. 시에는 인생의 희로애락과 같은 다양한 감정과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향기로운 시, 님의 노래, 그리운 고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시를 소개합니다. 시를 읽고 쓰며 시에 담긴 향기를 느껴 봅시다.

4 향기로운 시



생각하기

.....

시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시인이라면 어떤 시를 쓰고 싶은지 말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시를 읽고,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새봄

서덕출

산 넘고 물 건너

새봄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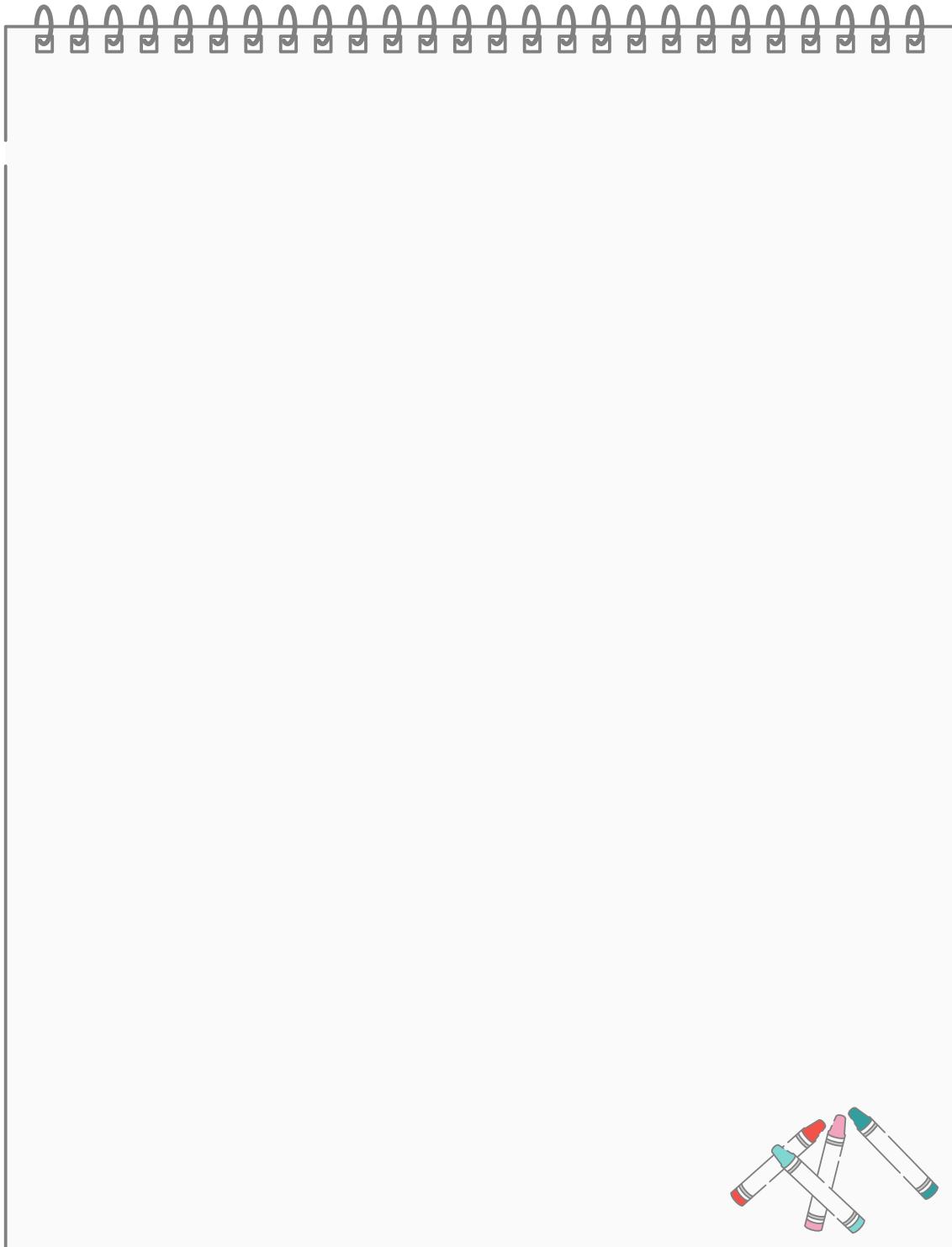
잠자는 나무에

새싹을 달아

웃음을 웃기며

새봄이 온다

■ 시를 읽으며 떠오른 봄의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2

새봄 보기

- <새봄>을 읽으며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새봄

서덕출

산 넘고 물 건너
새봄이 온다
잠자는 나무에
새싹을 달아
웃음을 웃기며
새봄이 온다

강남에 제비들
꽃 들고 오고
강 건너 저 나라
꾀꼬리 아씨
봄노래 한 곡조
부르며 온다

■ 읽은 시를 옮겨 써 봅시다.*

*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필사’의 의미와 효과를 설명합니다.

- <꽃시계>를 읽으며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꽃시계

권태웅

시계 시계

꽃시계

똑딱 소린 못 내도
척척 시간 맞추고

나팔꽃이 피면은
언니 학교 갈 시간

해바라기 고개 들면
소죽 펴서 줄 시간

분꽃이 웃으면
엄마 저녁 할 시간

시계 시계

꽃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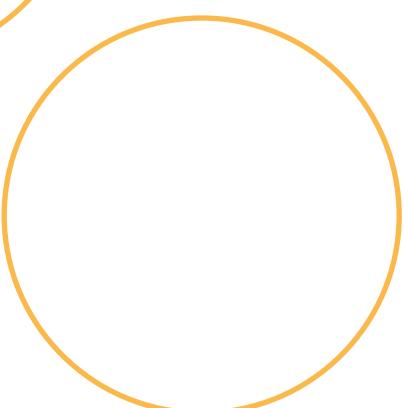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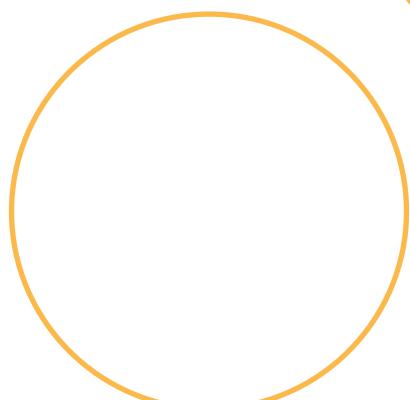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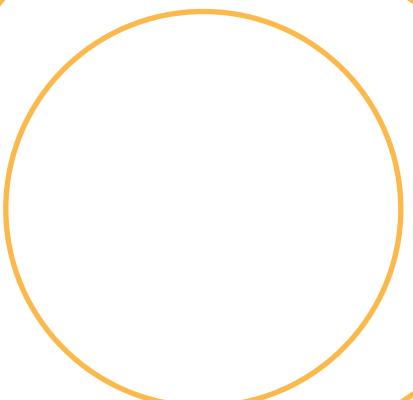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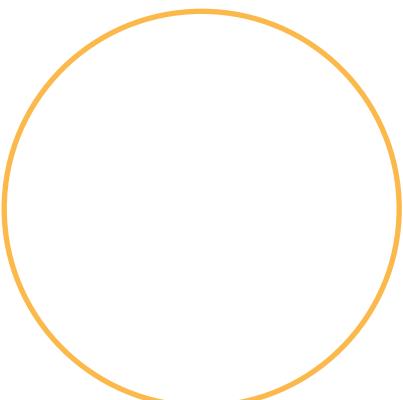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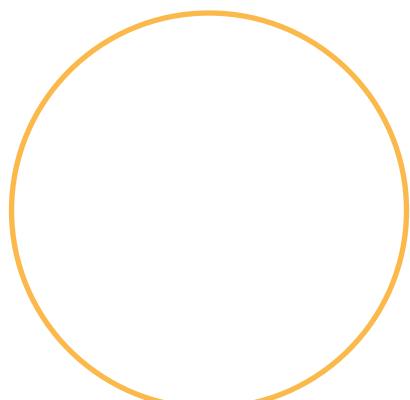
바늘은 없어도
척척 시간 잘 맞고

■ 읽은 시를 옮겨 써 봅시다.

3

나아가기

1. 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2. 내가 가장 좋아하는 봄꽃과 좋아하는 이유를 써 봅시다.

가장 좋아하는 봄꽃	
좋아하는 이유	

3. 1번과 2번에서 쓴 내용을 활용하여 봄을 나타낼 수 있는 짧은 글을 써 봅시다.*

* 교사는 학습자가 봄과 관련한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시의 형식을 갖추지 않거나 세 줄 내외의 짧은 글을 써도 좋습니다.

5 님의 노래



생각하기

.....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생각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시를 읽고,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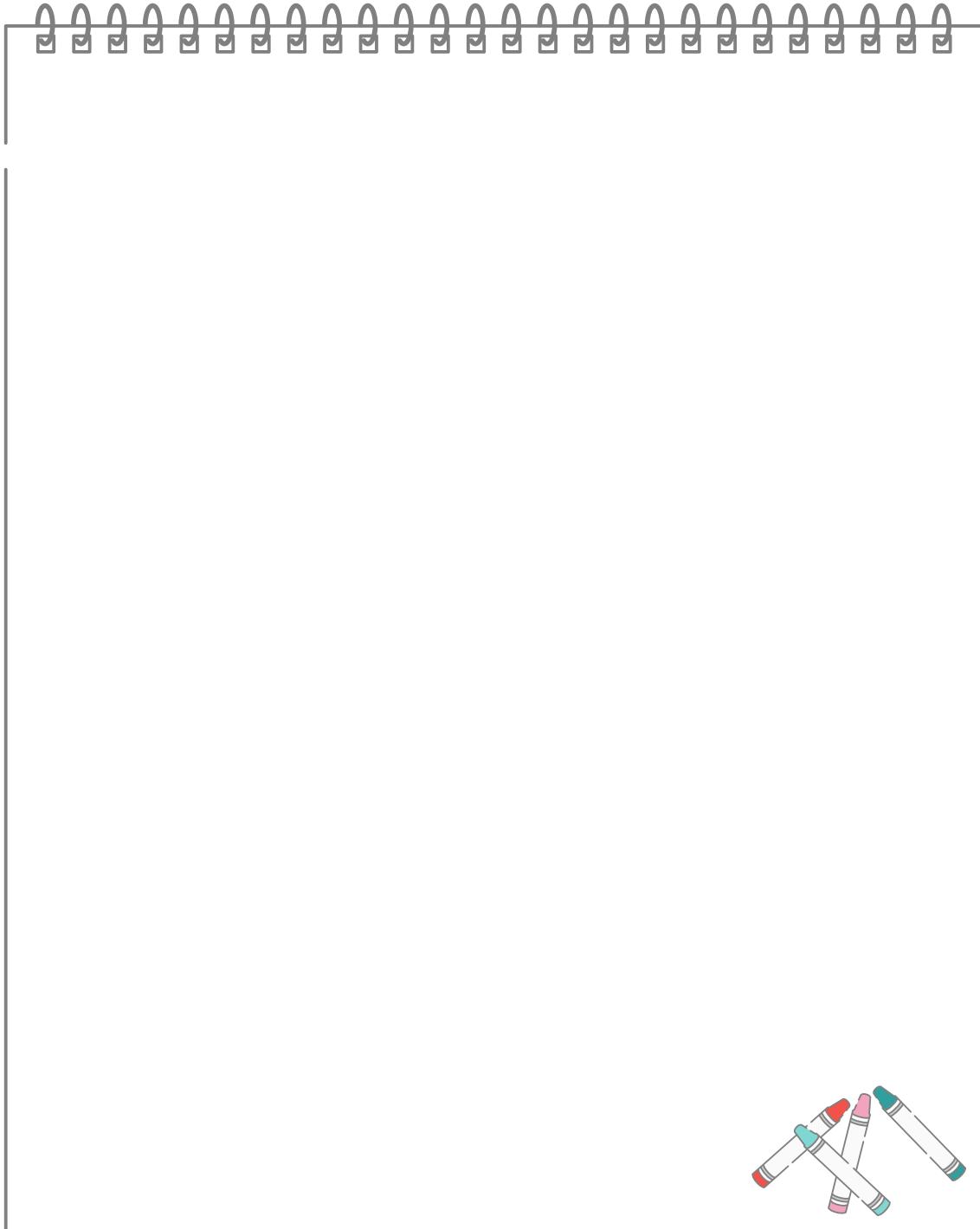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밖에

- 시를 읽고 생각나는 사람의 모습과 떠오르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2

새겨 보기

- <먼 후일>을 읽으며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먼 후일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읽은 시를 옮겨 써 봅시다.

- <호수>를 읽으며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밖에

■ 읽은 시를 옮겨 써 봅시다.

3

나아가기

1.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써 봅시다.

2.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

3. 보고 싶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세 가지 써 봅시다.







4. 앞에서 쓴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는
엽서를 써 봅시다.



6 그리운 고향



생각하기

.....

고향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시를 읽고,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고향의 노래-2013-101 by 조문현, 한국저작권위원회, CC-NC-ND

떠나 보고야

권태웅

멀리 떠나 보고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품 가슴이 그리운 것을

멀리 떠나 보고야 알았습니다
내 고향 옛 동무 그리운 것을

■ 시를 읽고 떠오른 고향에서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2 새겨 보기

- <고향집>을 읽으며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고향집

윤동주

현 짚신짝을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 읽은 시를 옮겨 써 봅시다.

- <떠나 보고야>를 읽으며 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떠나 보고야

권태옹

멀리 떠나 보고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품 가슴이 그리운 것을

멀리 떠나 보고야 알았습니다

오막살이 내 집이 그리운 것을

멀리 떠나 보고야 알았습니다

내 고향 옛 동무 그리운 것을

■ 읽은 시를 옮겨 써 봅시다.

3

나아가기

1. 어릴 적 내가 살던 고향은 어디였는지 써 봅시다.

2. 고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고향에서의 추억을 써 봅시다.

3. 고향에서의 기억을 바탕으로 ‘나의 고향’을 주제로 한 시를 써 봅시다.

III

가치 있는 옛이야기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옛이야기에는 여러 교훈과 재미있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원에는 세 줄에 쓰는 우리 시가, 여인의 지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옛이야기를 읽어 본 후, 오래 전해 주고 싶은 나만의 옛이야기를 써 봅시다.

7

세 줄에 쓰는 우리 시조



독서하는 여인 by 윤덕희,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CC BY



생각하기

.....

시조는 우리나라 옛 시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시조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생각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시조를 읽고, 시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아아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있으라 했으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 시조를 다시 읽으며 시조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2 새겨 보기

■ 황진이의 시조를 읽고 따라 써 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 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 황진이

아아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있으라 했으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쉽게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 황진이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밤낮에 흐르니 옛 물이 있겠느냐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 황진이

* 한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으니

■ <하여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시조를 따라 써 봅시다.

고려 말 이방원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힘썼다. 이방원은 반대파인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진심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해 <하여가>를 썼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 이방원 <하여가>

■ <단심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시조를 따라 써 봅시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이방원의 <하여가>를 듣고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노래인 <단심가>를 지었다. 이후 정몽주는 끝내 이방원의 무리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정몽주 <단심가>

3

나아가기

1. 황진이의 시조를 읽은 후, 시조를 쓸 때 황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써 봅시다.

2.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를 읽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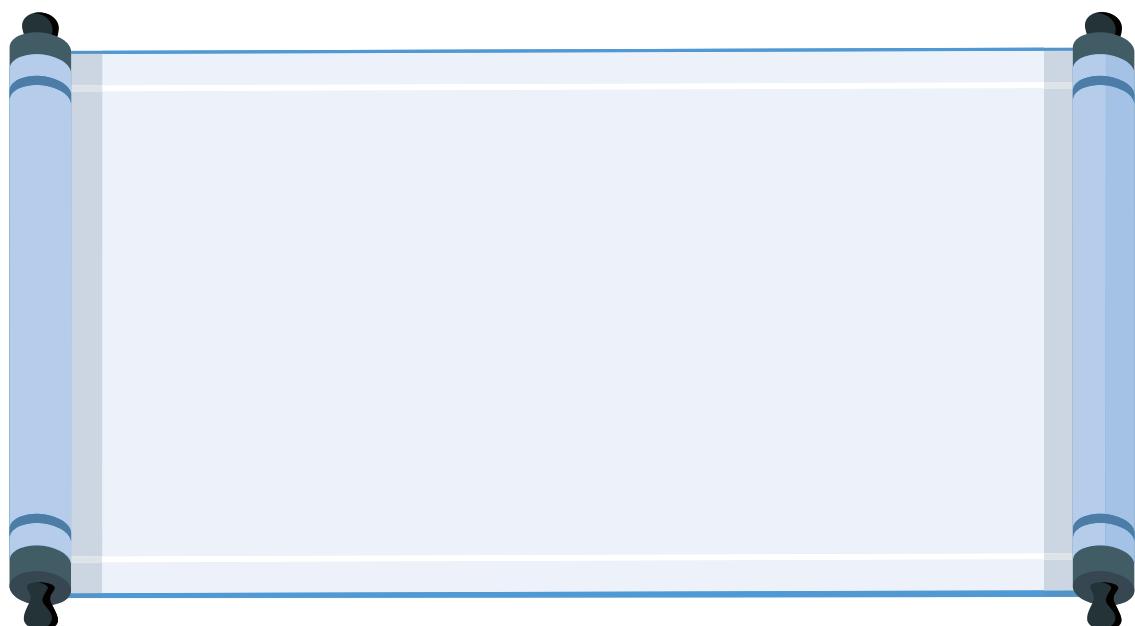
시조	느낀 점
이방원 <하여가>	
정몽주 <단심가>	

3. 내가 시조를 써서 전해 주고 싶은 사람과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1) 시조를 전하고 싶은 사람:

2) 전하고 싶은 말:

4. 3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줄로 된 시조를 써 봅시다.



8

여인의 지혜



생각하기

.....

여인의 지혜를 담은 옛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말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신사임당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초충도_수박과 들쥐 by 신사임당,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CC BY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조선 시대의 문인 이자 화가, 작가, 시인입니다. 신사임당은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가족을 유지하고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였습니다. 신사임당의 유교적 가치관과 어머니, 아내로서 모범적인 모습은 후대에까지 전해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5만 원권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 글을 읽고 여인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새겨 보기

■ 『사씨남정기』의 줄거리를 읽어 봅시다.

중국 명나라 유현의 아들 유연수는 15세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며 유한림으로 불렸다. 유한림은 덕성과 학문을 고루 갖춘 사씨와 혼인하였다. 유한림과 사씨는 금슬 좋은 부부였으나 9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이에 사씨는 남편에게 새로이 여자를 얻어 아이를 낳기를 권하였다. 유한림은 첨을 들이는 것을 거절하다가 사씨가 여러 번 권하니 마지못해 교씨를 첨으로 맞아들인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아 겉으로는 사씨를 존경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모함한다. 교씨는 아들 장주를 낳은 후 자신이 정실이 되려 한다. 교씨는 사씨가 뒤늦게 아들 인아를 낳게 되자 사씨를 모함해 내쫓고, 자신이 정실이 된다. 교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몰래 정을 통하던 동청과 함께 남편 유한림을 모함하여 유배를 보낸다.

이후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유한림은 교씨와 동청의 악행을 알게 되고,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사씨의 행방을 찾는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씨도 남편을 찾아 나서고, 사씨와 유한림은 다시 만나게 된다.

유한림은 사씨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교씨와 동청을 잡아 처형했다. 그리고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이한다.

-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써 봅시다.

■ 『박씨부인전』의 줄거리를 읽어 봅시다.

주인공 박씨부인은 박씨 집안의 딸로 지혜롭고 용맹한 여성이다. 박씨부인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나고 무예에도 능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박씨부인은 자라서 이시백과 혼인하게 된다.

이시백은 혼례를 올리고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다. 박씨부인의 모습은 괴물처럼 흉측했다. 이시백은 아내를 멀리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구박했다. 결국 박씨는 뒤템에 ‘피화당’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 몸을 숨긴 채 몸종 계화와 외롭게 살았다.

이후 이시백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였고, 박씨부인이 시집온 지 3년이 되었다. 박씨부인의 아버지는 박씨부인에게 전생의 업보로 생긴 추한 허물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박씨부인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이시백은 절세미인으로 변한 아내에게 그간의 일을 사과하였다.

세월이 흘러 조선은 외적의 침략을 받는다. 박씨부인은 외적의 침략을 내다보고 예방한다. 또한 청나라의 침략에서도 박씨부인이 전략을 세워 적을 물리치고, 군사들을 이끌어 승리를 거둔다. 결국 박씨부인의 지혜와 노력으로 외적은 물러가고 조선은 평화를 되찾는다.

이러한 박씨부인의 뛰어난 활약은 후대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박씨부인은 여성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써 봅시다.

3

나아가기

1. 내가 생각하는 여인의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써 봅시다.

2.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여성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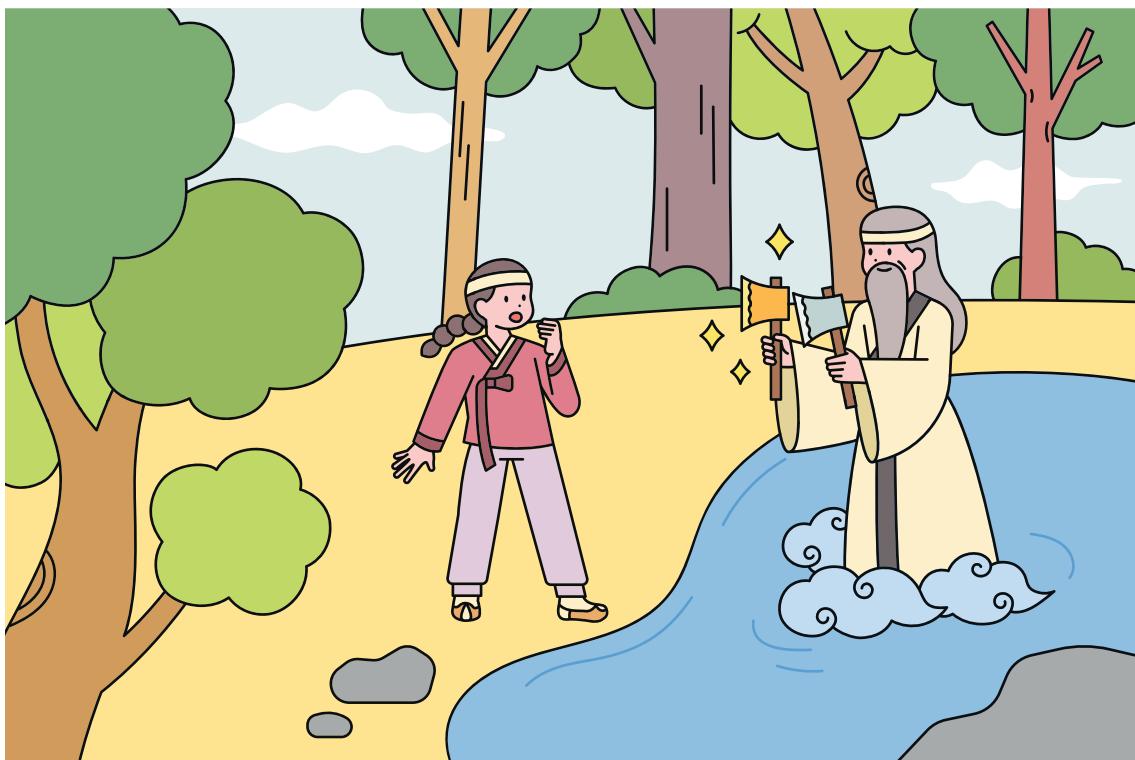
훌륭한 여성	
훌륭한 이유	

3. 2번에서 쓴 내용을 바탕으로 훌륭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써
봅시다.*

*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의 짧은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9

교훈을 주는 이야기



생각하기

.....

내가 알고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 봅시다.

1

읽어 보기

-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한 나무꾼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던 사슴을 숨겨 주었다.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던 사슴은 나무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아내를 얻고 싶었던 나무꾼은 사슴의 가르침대로 선녀탕에서 옷을 훔쳐 선녀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아이를 셋 이상 낳기 전까지 옷을 돌려주지 말라던 사슴의 당부를 잊은 나무꾼은 선녀에게 옷을 돌려주었다. 선녀는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 이야기를 읽은 후,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2

새겨 보기

- <오성과 한음: 감나무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오성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오성은 권율이라는 장군의 옆집에 살았다. 오성의 집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감나무 가지가 권율의 집 마당으로 휘어 들어갔다. 그 가지의 감이 익자 권율의 하인들이 마음대로 감을 차지했다.

화가 난 오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권율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권율의 방문에 주먹을 짤러 넣었다. 방문의 창호지가 찢어지는 소리에 권율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무슨 일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이때다 싶어 오성이 물었다.

“방문에 들어간 이 주먹은 누구의 주먹입니까?”

“네 몸에 있으니까 네 주먹이지, 누구의 주먹이겠느냐.”

“그러면 저희 집 감나무의 감은 누구 것입니까?”

“너희 집에 있으니까 감도 너희 것이지.”

그러자 오성은 하인들이 감을 가로챈 일을 추궁했다.

권율은 어리지만 용기 있고 지혜로운 오성을 보고 감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오성을 손주 사위로 삼았다.

■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써 봅시다.

■ <황희 정승과 두 마리 소>를 읽어 봅시다.

황희는 젊었을 때 자신의 재주만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기도 했다. 황희가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려고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다.

영남 지방의 들판에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 황희는 땀을 식히려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런데 건너편 논에서 늙은 농부가 누렁소 한 마리와 검정소 한 마리를 데리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황희는 한참을 구경하다 그 농부에게 물었다.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늙은 농부는 쟁기를 내려놓고 황희가 있는 나무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황희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누렁소가 더 잘합니다.”

황희는 농부의 행동이 이상하여 물었다.

“아니, 그냥 논에서 해도 될 말을 가지고 일부러 여기까지 나오시오? 그리고 왜 귀에 대고 소곤거리오?”

늙은 농부는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두 마리가 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더 잘한다고 하면 못하는 쪽은 기분 나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짐승이라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소!”

황희는 농부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경솔함을 크게 깨달았다. 소를 대할 때도 이와 같아야 하거늘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감사하오.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소.”

황희는 늙은 농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큰절을 했다. 이후 황희는 언행을 조심하고 죽을 때까지 남의 단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분이 낮은 농부의 말에서도 지혜를 얻어 실천하며 훌륭한 정승으로 이름을 남겼다.

-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써 봅시다.

3

나아가기

1. 이 단원에서 읽은 옛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써 봅시다.

2. 오래도록 전해 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생각하여 정리해 봅시다.

전하고 싶은 일	
그 일에 관한 이야기	
전하고 싶은 교훈	

3. 2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써 봅시다.